

1. 教会에 革新을!
2. 社会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第29回總會準備進行

母国教会代表도 選出초청

在日大韓基督教会第29回定期總會는 10월9일~11일까지 大阪西成教会(金元治牧師視察)에서 열리게 된다. 지난7월19일午後8時부터 奥津河鹿園에서 열린 任職委員會에서 人事件、宣教基本政策方案件、新年度予算案等 여러가지案件을 長時間에 걸쳐 토의한후, 금년도 第29回定期總會 開催日時와 場所를 이상과 같이 決定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定期總會는 二年前의 하나이며 其他 新年度 예산안、第一회訪美시찰단의 보고、其他종회각 부보고등 여러問題가 論議될것이다. 본總會는 이번 종회개최기간중의 滞在費를 본國教團의 代表를 초청하여 招請狀을 발송하였다. 유호준목사(예장통합)이영수목사(한통)

최희섭목사(기장)최종철목사(감리교)이외에 크리스찬신문의이창식총무와 기독교방송국의이현찬목사도 참석하게 될것으로 안다. 한편 종회장소의 여러가지 준비와 개최기간중의 식사、침실준비등은西成교회에서 맡아 수고하기로 되어있고 침실이부족할 경우 인근교회에도준비케 될것이다.

朴牧師支援운동 積極化

日本NCC・東神大同窓會서

지난4월復活節 새벽集會때 뿌려진 비라가 政府轉覆을企圖했다는証據로써 內亂陰謀容疑로 체포기소된 朴炯圭牧師와 기독교학생 관계의裁斷金錫錫牧師는 同公判

을 위해 急遽 歸國하면서 지난11일 東京에 들러 朴牧師사건에 至대한 관심과 支援에 나선 日本NCC 및 기독교단 관계人士들을 만나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朴牧師를 위한 日本教友들의支援에 대해 심심한 謝意를 표하였다.

日本NCC는 美国NCC와 함께 各二名の代表를 8월초순 서울에 파송코 문제조사와 교회와가족에 대한 위로를 드린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韓國基督者支援會」를 發足시켰다. 同會는 相川高秋NCC議長을 비롯하여 長清子、飯沼二郎、伊集院和子、後藤真 各氏가 發起人이 되어 있다.

洪東根牧師(京都)辭任

후임과 渡美

지난三년간 京都教会를 視察하면서 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教育局長職을 맡아 여러가지 모양으로 본會의 發展과 宣敎擴張을 위해 애써온 洪東根牧師는 一身上事情으로 同教會를 辭任코 지난 八월

関西信徒学院 第十回修了式



신도학원 수료식 광경

京都分院 김갑용, 김남연, 김양임 권영애, 예술분, 이순애 맹순애, 조인순 한편 성경통신과는 총회산하 전국교회신도들대 상으로 계속 수시(隨時) 모집하고 있는데 現在까지 다듬의 14教會에서 74名이 入学하고 있다. 西成(9) 北部(2) 平野(7) 布施(7) 神戸(2) 築港(4) 京都(7) 大阪(3) 横濱(3) 広島(5) 三ノ宮(7) 青木(3) 川西(1) 明石(5) 其他個人(7)이다. 앞으로 關東、中部、西 南地方 各教會에서도 聖經通信科로 성경공부에 힘쓰게 하기 위하여 鄭榮禧선교사가 각교회를 순방할것이라한다.

總會召集公告

在日大韓基督教会第二十九回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召集함을 公告함.

- 一、日時 一九七三年十月九日(火) 午前十一時부터 同十一日(休)午後五時까지
- 一、場所 大阪西成教会堂 大阪市西成區梅通五—二 電話〇六(651)五一九六

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

總會長 金錫錫

친구여 나의 여름은

친구여 나의 여름은 그 어느듯한 三伏더위도 잊어버린채 안타까이 지나가 버렸다. 웅색한 아파트에 물러가 있는것도 아니지만 더위를 모르고 지낼 수 밖에 없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주인이 한낮에도 독을 맛았는데 독을 보파리를 내가 전에 살던 내 집에다 내 동생이쳐 버렸다. 숨어버린 독이 나타나 어서 날 살려주는 울바른 소리를 띠어 놓아야 할텐데. 구태어 내가 누명을 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여 그대는 내 입장을 이해할거야. 울바른 소식 이제야 나 올가 제야 들려올까 기다렸고 초조와 분노와 놀람과 안타까움이 매일같이 내 간장을 서늘케 하고 나의 여름마저 앓아가 버렸다. 정말 그렇군 친구여! 생각하니 이것은 비록 여름만의 이야기고 아니고 나 혼자만의 이야기고 아니었군. 하늘이여 우리의 세월은 남처럼 좋은 노래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분노를 기도로 승화시키면서 계절도 잊은채 지나버려야만 하는 것인가고. (逸 羊)

夏季修養會總括報告

글과 사진으로 본 총회 산하 각기관이 보낸 여름의 회고

中部・関東 連合女伝道 會修養會

中部・関東地方連合會女
伝道會 合同 修養會가 8
월 22~24일의 2泊3일에
 걸쳐 아름다운 自然동산
인 御殿場・東山莊에서 약
 70명이 참가하여 열렸다.
 主題「배우자 우리의 역
 사」에 따라 一世會員과
 二世會員으로 나누어 吳
 允台 李仁夏 두 강사의
 강연이 있었다. 過去の그
 리스도인들이 살아온 歷
 史를 배움으로 現在 사
 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
 떤 뜻이 가지고 있으
 며 또한 우리들이 信仰
 과 現實을(특히 在日韓
 國人基督者로서) 어떻게 생
 각하며 關連지을 것인가
 는 問題提起가 되어 各
 自 意見의 차이가 많았
 고 앞으로 在日大韓基督
 敎會 全體의 큰 課題가
 될것으로 생각된다.



東山莊에서 가진 關東・中部女伝道會 수양회

全國教會青年 夏季修養會

全協中央委員會主催로 열
 린 第21回修養會는「在日
 大韓基督敎會とは?」副題
 로「現實に關わる敎會青年」
 이란 제목으로 會牧者主
 題강사로 吳允台牧師、聖
 書研究會 千葉宣義同志社
 大學宗教主事를 모시고 8
 월 14~17일까지 信州八ヶ
 岳 野辺山高原에서 가졌
 다.



野辺山高原에서의 青年 수양회

關西地方女伝 道會修養會

同女伝道會교무부주최夏
 期연수회는「배우자 우리
 역사」라는 主題로 池明觀
 교수(主講者)・丁仁壽목사
 洪東根목사・鄭榮禧전도사
 를 모시고 7월 25~28일
 小豆島國民宿舍松楓莊에서
 大人 70명 小人 17명이 참가
 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主講者인 池明觀 교수 그
 의 著書인「流れに抗して」
 와「アジヤ宗教と福音の倫
 理」를 參考로 우리 祖國
 의 信仰의 歷史를 論하
 였다. 특히 女信徒들의 活
 動이 敎會의 發展을 左
 右하는 原動力임과 伝道
 는 牧師個人의 任務가 아
 니라 온신도가 그 地域에
 서 具體的인 人間關係로
 서 되어지도것임과 女信
 徒들의 活動이 없는 敎
 會는 敎회의 구실을 못
 한다고 力說하였다.
 (報告者 吳仙妣)

大阪敎會

大阪敎會에서는 지난 8
 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
 주도 서귀포 관광호텔에
 서 모국방문 하기수양회
 를 개최하였다.
 신도 35명이 참가하였
 으며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제주도에서
 시무하시는 강경옥 서광
 연 문대선 고대진 제목
 사들이 강사로 말씀하시
 고 오후에는 제주도관광
 또는 합덕 협재 중문리
 등지에서 해수욕을 하며
 즐거운 4박5일의 수양
 회를 마쳤다고 한다.
 그리고 大阪敎會 여전
 도회에서 박수규 윤석
 남 박희순 집사들이 중
 심이 되어 제주도 양로
 원을 방문하여 금 일봉
 을 헌금하였으며 위로의
 다과회도 가졌다고 한다.

母国서 여름수양회

濟州道三陽敎회 建築 보조

西南地方女伝 道會修養會

西南지방 連合女伝道會
 수양회는 지난 8월 16일
 에서 18일까지 門司에 있
 는 國民宿舍めかり山莊에
 서 金仙媛 목사를 강사
 로 모시고 33명이 참가
 하여 무사히 끝마쳤다.
 (以上 報告된 분)

안나會創立

京都敎會

경도敎회는 敎회선교에
 百%참가자는 敎회목료
 에 따라 할머니들의 직
 극적인 선교참가를 위해
 「안나會」를 發足시키고
 7월 22일 오후 洪東根
 牧師執禮로 創立禮拜를 가
 졌다.
 會名인「안나會」의 근
 거는 누가복음 2장 36~40
 의 여선지자「안나」의 중
 거를 따라 지은것이다.
 이회의 사업으로는 상호
 친교와 가족전도를 목적
 하며, 특별히 가정의 신
 앙적계승을 위해 힘쓸것
 이라한다. 회원의 자격은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이
 날 21명의 할머니가 임
 회하였다.
 △회장 김병래

소록도 나병

원예 구호금

재일 대한기독교 여전
 도회 전국연합회 후생부
 에서는 과거 수년에 걸
 쳐 일본 岡山에 있는 나
 병원을 돕는 일을 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모국 소
 록도에 있는 나병원을 돕
 기로 하여 후생부장 윤
 석남 집사가 중심이 되
 어 전국적으로 모금한바
 30여만원에 도달하였으
 므로 지난 8월 12일(일)
 윤석남 박수규 집사와 김
 경주 장로가 소록도를방
 문하여 위문하고 구원금
 도 전달하고 같이 예배
 보는 중에 은혜에 깊이
 잠기고 돌아왔다고 한다.

第24回關東地方會

총회를 앞두고 9월 중
 에 총회산하 4개 地方會
 가 개최된다.
 關東地方會는 9월 15일
 第24回地方會를 가지고 여
 러가지 案件을 토의, 총
 회에 上程키로 되어있는
 데 새로 선출된 任員과
 重要案件은 다음과 같다.
 會長 金君植
 副會長 金漢弼 吳允台
 書記 金桂昊 孟哲輝
 會計 權泰岳 李永欽
 伝道部長 楊炯春
 教育部長 李大京
 社會部長 尹官炳
 監事 金聖河 姜重九
 (重要議案)
 ①총회를 二年에 한번
 모이는것이 좋다(경제적
 문제).
 ②敎會新築에 대한 補
 助要請의 件(橫濱).
 ③長老増員請願(川崎 2
 船橋 1 東京 2).
 ④女長老・女牧師 許諾
 의 件.

盧弘燮牧師別世

노홍섭(盧弘燮) 목사가
 지난 8월 16일에 간경화
 증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가료중, 하남의부
 르심을 받았다.
 영결예배는 8월 20일 오후
 9시 30분 공덕 장로
 교회에서 서울노회장으로
 노회장 이종영 목사의 집
례로 거행되어 전경연목
사의 「친구를 위하여」목
숨을 버리던」이란 설교
와 장례진 목사의 축도
로 끝마치었다. 고 노홍
섭 목사는 一九二五年 1
월 15일, 부 노동읍 모김
당에서 출생, 一九五三年 3
월 15일 서울 우석대학교
한국신학대학(신학사),
一九七二年 12월 일본동지
사대학 대학원 수료(신
학석사) 학위를 받고 귀
국하였는데, 일본에 있는
동안 神戸三宮전도소를위
하여 헌신적인 노력을하
여 유가족에는 박영옥
미망인과 장녀 은미, 이
녀 은진, 장남 은범, 이
남 은구가 있다.

不動産業務全般

土地・建物・山林売買・仲介・管理及び投資の御相談、不動産の事ならお気軽に御一報下さい。特に信者の方には遠近にかかわらず無料相談に応じます。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光洙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八千代通3丁目11番地
(名古屋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 太栄ビル)
電話 (052) 682-1177(代)
自宅 名古屋市千種区猪高町猪子石原字太田1406の3
電話 (052) 771-5952

免許番号・愛知県
知事(1)第5426番

